

북한개발소식

2022 NOV

11

통권 205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발전과 그 시사점

탈북민 수기

주님의 은혜 (3)

북한뉴스

북한, 9-10월 연달은 대규모 군사 행보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발전과 그 시사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2 NOV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발전과 그 시사점

- 권두칼럼 **01** 북한의 부동산과 주택시장의 발전과 그 시사점
- 칼럼_1 **08** 백명숙 _ 북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
- 칼럼_2 **13** 최 설 _ 북한의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가능성 고찰: 시멘트시장 중심으로
- 칼럼_3 **20** 최진이 _ 식량미공급제가 낳은 북한 부동산시장, 욕망에 눈뜨는 김정은 시대 주민
- 탈북민 수기 **29** 김모란 _ 주님의 은혜 (3)
- 북한뉴스 **34** 북한, 9-10월 연달은 대규모 군사 행보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외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물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여러 대규모 살림집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 많은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 이러한 건설 사업들이 어떻게 어려운 경제사정과 물자 부족 속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는 우리 눈에는 수수께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 5개년 계획 관련 선전화 (조선중앙통신=NK 경제 재인용)〉

최근 연일 군사 행보를 보이는 북한을 볼 때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대북 제재 해제는 단시일 내에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 21년 1월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며 과학기술 및 재자원 국산화의 활성화, 청년들에 대한 노력 동원 등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성장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건설 사업은 주요한 산업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주택 건설은 주택 시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주민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배급하는 시스템이지만 최근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서민들에게는 한 가정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경제 이슈이면서 생존의 이슈이다. 경제난과 국경 봉쇄에

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북한의 적극적인 살림 집 건설의 배경과 북한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를 생각해보고 선교를 위한 북한 사람과 사회의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북한 부동산 시장의 대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부족에 시달렸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억지로라도 주택 배정을 하다보니 실제로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시설에 배정이 되거나, 배정순서를 기다리며 대가족이 작은 집에 다닥다닥 생활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주택 부족 사태 장기화에 90년대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일부 개인주택¹을 제외하면 부동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한 가정 당 하나의 주택을 배정하는데 그에 맞는 ‘국가살림집이용허가증’, 즉 입사증을 발급한다. 그렇지만 이 입사증에는 배정받는 주택과 가족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속 배정받은 집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정받은 주택 중 일부는 교환이 가능했다. 이러한 교환도 불가피한 경우에 대응하는 제도였다.

북한의 주택매매는 이러한 제도의 틈새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북한의 주택매매에 대한 통일연구원 정은이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90년대 닥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경제난은 북한의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² 경제난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도강하면서 빈집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이 빈집에 대해 입사증을 받고 원하는 주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법적 문제를 피하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 살림에 고생하던 간부들이나 국가 기간원들 중에는 집을 파는 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집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이 등장하면서 집의 가격은 그 입지와 질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매매를 보증하거나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북한인지라 부동산 시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 모습이다. 먼저 주택의 가격은 남한과 비슷하게 그 주택의 상태와 입지를 주로 반영하여 조정되는데 시장이나 역전 등 입지가 좋은 곳이 비싼 값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주로 북한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나 미 달러화 등 외화로 거

래가 된다. 이 때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택 관련해서 위법으로 걸리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사증을 발급하는 도시경영과의 간부들이 매매된 주택을 행정적으로는 집이 교환된 것으로 처리해주고 입사증을 새롭게 발급해준다. 기존 법에 위배되지 않게 거래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한 가정은 한 주택만 소유하며 다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은 법이나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사람에게 뇌물을 써야하고 자칫하면 분쟁과 소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부동산 매물 소개에서부터 거래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집데꼬’들도 나타났다. 우리 식으로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 활동 역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비법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권력기관, 법기관, 주택당국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주로 맡으며 체격도 건장하고 완력도 강한 사람들이 보통이다. 이들은 10%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안전장치가 전무한 북한의 상황에 따른 가격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살림집 건설 붐과 돈주들

북한은 현재 주택 수의 부족 뿐 아니라 오래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2012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현장의 모습 (노동신문)〉

창전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려명거리 등 평양 내신시가지 건설 사업을 벌였다. 코로나시기에 열린 2020년 노동당 제8차 대회 개최사에서는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2만여 세대의 새 살림집을 건설한 것을 위대한 공적으로 자평하였다. 그리고 제8차 당대회 기간에 발표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평양시 5만 세대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평양시 내에 신규 살림집 5만 세대를 건설하되, 구체적으로 연간 1만 세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1년 3월 첫 공사인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건설 착공식이 열렸으며 연말 즈음에는 완공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올 2월 두 번째 공사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³ 코로나가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 사

1 사회주의 제도수립 이전에 세워진 집으로 국가가 몰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어 내려온, 혹은 그것이 개인재산으로 개축된 주택을 말한다. 정은이 (2015)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 27권 1호, 293-294.

2 앞의 글, 318-320.

3 북한: '1년에 1만세대 주택 건설'... 경제난 속 건설에 집중하는 이유는?, BBC 코리아 (2022.02.15.) <<https://www.bbc.com/korean/news-60300310>>

업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 살림집 건설을 위해 그 동안 10만 9천여 명의 청년들이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으로 참여했다고 한다.⁴ 이렇듯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은 다수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일에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북한에서 주택 건설은 개인이 진행할 수 없다. 반드시 국가 기관이나 기업소가 건설 주체가 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직장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에게 제공할 주택을 중앙국가 기관(주로 평양) 또는 지방당 인민위원회에서 건설하는데 공장 및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하기도 한다. 이렇게 건설된 주택의 상당수는 여전히 배정 순위에 따라 무상 배정을 목적으로 건설된다.

그렇지만 부동산 건설에는 당연히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가 기관이나 기업소들이 이 비용을 모두 자체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자본을 축적한 개인, 즉 돈주들이 건설에 ‘기부’ 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후 완공된 주택 또는 아파트의 일부를 투자한 돈주가 처분할 수 있게끔 제공하여 이 집들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 기관은 이름만 걸고 실제로는 개인이 건설하는 주택들도 생겨나고 있다. 좋은 입지에 살림집 단지를 지어서 되팔아 차액을 남기고 이를 기관과 투자한 돈주가 나

눠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 집단과 개인업자의 연합은 북한의 부동산 시장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북한 당국의 선행

북한 내에서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는 앞서 언급한 주택 부족 현상과 주택 시장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돈주 및 관료 집단의 움직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내부 결속 및 민생 안정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의 물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산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록 내부 마감재 등 수입에 의존하는 물품이 있긴 하지만⁵ 전체적인 골재 등 자재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건설 산업은 당국의 입맛에도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굿파머스 최설 연구위원은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설 자재 중 상당 부분이 북한 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 19로 국경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 국내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들을 통해 생산되는 이러한 산업들은 오히려 효과적인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⁶ 즉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지속된다면, 북한 당국은 수입의 감소에 대처해 내부 자원 동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선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국가건설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시멘트·모래시장 등 건자재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⁷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건설 사업이 코로나 봉쇄와 경제 제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은 또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일종의 정치사업의 성격도 가진다. 일차적으로는 약속한 주택 공급을 이뤄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민생을 챙기는 행보로서 인식되어 정치적 의미가 있다. 또한 건설 사업에는 각 단위별로 전국적, 지방적으로 물적, 인적 자원 동원 체계를 가동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내적 결속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완성된 건축물을 통해 현 체제의 건재함을 드러내는 장치도 된다.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개입과 영향력이 크다 보니 시장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최봉대 교수는 북한이 “주택배정제도에 의해 개인건설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국가소유제를 유지하면서 개인들의 주택 사용권만 인정하고 주택매매는 불법으로 규정한 위에서 비공식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비공식 주택시장의 발



〈평양 고급아파트촌의 야경. 아파트 단지 앞으로 보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대조적이다.〉

전을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⁸ 그리고 국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 주택 건설 및 공급의 불법성을 묵과하는 듯 보이지만 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공식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개입과 통제방법에는 비공식적 주택 재산권의 불인정, 개인 주택건설의 규제, 국가주택의 공급 확대, 개인 청부업자 제거 등이다.⁹ 예를 들어 북한은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집이라도 국가 계획에 따라 재개발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되거해야 한다. 또한 돈주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당국의 표적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 돈주들이 안전을 고려하며 제한되게 사업을 벌이게 된다. 즉 북한 당국은 국가 경제와 정치적 효과를 위해 살림집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면서 시장의 요소도 일

4 북한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장, 청년 10만 9천여명 동원, SPN 서울평양뉴스 (2022.09.03.)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7>>

5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첫 해부터 차질, 자유아시아방송 (2022. 02.0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nstruction-02072022103251.html>

6 최설 (2022), “북한의 자생적 건자재 시장 연구: 시멘트·모래 시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7월호, 41-60.

7 앞의 글, 61.

8 최봉대 (2022), “북한의 주택배정제도와 비공식 주택시장 발전의 제한성 -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부동산분석 제 8권 2호, 121-144.

9 앞의 글, 139-141.

부 눈감아주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활동에는 제공을 걸면서 관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선교적인 의미

비록 당국에 의해 제한은 받고 있지만 북한의 부동산 시장의 대두와 발전은 분명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시장은 주로 장마당으로 표현되는 생필품에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사고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아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일종의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 속에서 주체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이 익숙해진다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그러했듯이 새로운 시민 사회 형성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런 만큼 북한의 시장 발달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곤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보통의 장마당과는 달리 투기적으로 자본을 운영할 수 있고 권력과의 연줄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그 이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이면서 동시에 그 상품의 특성상 가격이 매우 고가이다. 주택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이 막대한 자금과 함께 주택 매매를 합법화하는 행정 절차

를 진행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쳐야 하는 단계와 관련 기관들이 많고 각각의 간부들에게 뇌물을 쓰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은행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은행 대출도 생각할 수 없어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돈을 구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주택시장은 자연스럽게 권력과 연줄이 있는 집데꼬라고 불리는 거간꾼들, 그리고 돈주라고 일컬어지는 자본가들의 돈벌이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자연스럽게 얹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다보니 북한 서민들의 입장에서선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없게 하고 기존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정부패가 필수적인 부동산 시장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의 마인드가 선교에 어려운 방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의 정확한 기준이나 법망을 피하여 투자와 투기를 넘나드는 사업으로 큰돈을 버는 주택 환경이 많은 서민들에게 성공을 위해서는 불법과 부정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배금주의의 위협도 심각하다. 과거 구 공산권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모든 이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공산주의가 변질되거나 붕괴되면 더욱 극심한 물질주의로 빠져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극심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가가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해 기존의 법률을 유지하면서 돈주들 자체적으로가 아닌 국가 기관 및 관료와의 연줄이 있어야만 사업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시스템 속에서 어찌 보면 국가와 돈주가 한통속이 되어 돈벌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권력에 결탁해야만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돈주들에게 주체적인 시민의 모습을 기대하기란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오히려 국가에 더욱 종속적이고 충성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돈주들 역시 당국의 코로나 기간 국경봉쇄와 국내 생산 및 소비 장려로 인한 이윤 감소, 외화 수입원 차단 등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당국이 외화를 포함해 모든 자원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켜면서 돈주들의 비즈니스 공간이 축소되는 등 당국과 돈주들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는 여전하다.¹⁰

국가적으로 주택 시장과 연관된 건설 사업이 제재로 인해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보니, 앞으로도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건설 사업에 열을 올릴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행보가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돈주로 상징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층의 성장 및 북한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이 확실한 만큼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0 “북한 돈주들도 한계상황…내년 더 악화할 듯”, 자유아시아방송 (2022.10.14.)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economy-10142022092158.html>

북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

백 명 숙 박사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전임연구원)

2021년 남한의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집값이 올해 들어 무서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남한사회에는 부동산은 일단 구매하면 가격에 계속 오른다는 판단 하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은 물론 대출금까지 동원하여 집을 구입했던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라는 의미의 신조어 ‘영끌’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남한의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무리한 가계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영끌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¹. 그런데 이와 같은 ‘영끌’ 현상이 비단 남한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최근 몇 년간 전해지는 대북소식들^{2,3}과 연구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도

심 곳곳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며 평양의 집값이 치솟는 모양과 강남의 집값 상승은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북한에서 부동산 시장이 출현하고,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사회의 모순과 허구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분배, 평등주의적 분배의 원칙이 북한에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없다. 국가건설위원회를 통해 모든 인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주택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매매되고, 고도화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북한이 형식적으로 사회주의 외피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힘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북한의 중앙공급계획은 많은 부분이 마비되었고, 북한 전역에 수많은 자생적 시장을 촉발시켰다. 국가는 시장에 대한 용인 범위를 점점 넓히면

서 각 영역에서 시장이 활성화된다⁴. 북한의 시장은 당국의 용인, 암묵, 허용, 지원, 통제의 복잡한 양상을 경험하며 확산과 축소를 거듭해왔다. 북한시장을 분류한다면 크게 공식시장과 비공식시장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장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유독 공식/비공식, 합법/불법의 경계가 혼재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부동산 시장의 작동은 시장 메커니즘(민간)이 주도하지만 건설허가에 있어서는 관료와 국가가 관여하는 폭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건설업은 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기본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지표를 받은 기관 또는 기업소가 건설주가 되어 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정은이, 2016)⁶.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건설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지역별 기관, 기업소에게로 책임이 할당되었다. 전문 건설업체가 아닌 기관들도 건설지표를 중앙에서 하달받으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가 막대한 주택수요를 중앙계획체제로 온전히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각 기업소나 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면서 건설권한이 일

부 이양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이후부터 돈주와 일반 기업소도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장에서 자본을 축적한 민간 자본가 돈주는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기에 중앙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설이 가능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고, 특히 2009년 화폐개혁에서 원화가치가 절하되면서 북한 원화가 아닌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을 보전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주택 보급률과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정은이, 2018)⁷.

이러한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 자본가는 시장 작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국가건설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도시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2014)에 의하면 북한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권력, 민간자본, 시장, 도시관료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양의 사례를 살펴보면 평양 도심의 아파트는 힘 있는 기관들이 건설허가를 따서 짓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찾는 과정으로 건설이 시작된다. 이때 기관과 민간 사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브로커가 존재하는데, 브로커는 민간자본, 조선족,

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201967i>

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eo-life-09302021150458.html

3 <https://www.yna.co.kr/view/MYH20220722005500535>

4 정은이. 2015.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7(1), pp. 289-328.

5 백명숙, 김성배. 2020. 북한 소비재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7(2), pp. 1-42.

6 정은이. 2016.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장과 함의에 관한 분석: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7 정은이. 2018.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30(4), pp. 1-30.



〈올해 초 완공된 평양 송신·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

화교 상인의 자본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일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컨소시엄일 수 있다. 민간 사업자 또는 민간 자본가들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 자재, 장비 등에 필요한 현물과 자금을 제공하고, 자재들은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한다. 건설자재의 수입권은 수도건설총국, 제2경제(군수부문), 인민보안부 등 극히 일부의 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다⁸.

한편 시장영역에 형성된 건물들은 대부분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건설되는데 기관 및 기업소는 이들 민간 사업자들과 아파트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내각 국가건설감독성에 건설계획을 보고한다.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자본이 사용되지만 국가건설계획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건설감독성 승인이 나면 기관, 기업소는 인민보안부 산하 공병부대인 7총국(시공사), 수도건설총국(평양시 건설공사에 투입된 돌격대 및 건설단체 통제) 등과 연결하여 건설에 착수한다. 이들은 시공의

전문성이나 인력 동원에서 가장 조직화 된 기관으로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시공과 건설을 주도하면서 관련 권력기관 앞으로 아파트 물량을 할당받을 수 있고 공사 관련 인허가나 진행상의 편의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부동산 구조에서 통제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일종의 소유권)은 개인이나 민간에게 있으며, 부동산 건설을 통해 얻는 수익권은 국가와 민간이 분리하여 갖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체제전환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재산권 구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통제권과 수익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관료들은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민간 자본가에게 건설 허가를 내주고, 민간 자본가들은 관료들과 결탁하여 사업권을 독점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과 민간 자본가 사이의 권력유착과 부패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관료들에게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청탁한 민간 자본가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백두산 선군 청년 돌격대로 양강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A의 증언⁹은 이와 같은 북한 부동산 시장의 폐단을 잘 설명하고 있다. A는 도1월호 돌격대 산하에서 도로 건설과 건물 건설을 주로 하는 기관에 속해 있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건설을 진행하게 되면 하면 이를 도별 기업소 별로 할당하여 분배한다. 그러나 기업소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당받은 건설사업에 투자하여 물자와 인력을 공급할 민간 자본가(돈주)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2000년 초중반의 돈주들은 주로 명예와 권력에 충성했다면, 2010년 이후 젊은 돈주들은 명예나 국가 당국의 권력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고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돈주에게 관료(안전부, 보위부, 당 기관 등)들이 먼저 찾아온다. 돈주는 관료들의 건설제안을 듣고 해당 사업을 진행한 후 어떤 이익(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데, 관료들이 제안하는 조건은 불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돈주들은 건설 사업에 투자를 하는 대가로 관료들에게 주로 정보를 요구한다. 이미 국가의 건설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지을 예정 인지 건설정보를 도당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당위원회는

돈주의 투자를 받기 위해 건설 위치, 건설준공 날짜, 입소 가능 날짜와 절차 및 방법 등 건설사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돈주에게 먼저 제공을 해줌으로 돈주가 독점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부동산 건설사업으로 관료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가령, 돈주가 10만 달러를 가지고 혜산 야영소에 건설투자를 할 때 관료들에게 10만 달러 안에서 필요한 자재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선 파악한다. 후에 돈주가 1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사업을 시공하고, 그 과정에서 관료들이 제공한 독점적 정보를 통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건설수익을 관료들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배분한다. 또한 돈주는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통해 자신과 관료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렇듯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위해 인민들에게 건설성 과를 선전할 뿐, 실상은 민간 자본가와 관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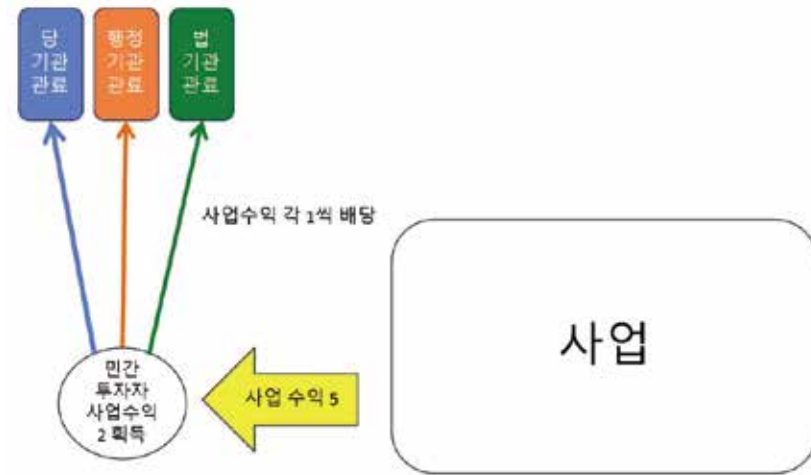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민관 협동사업의 투자 절차



8 홍민. 2014.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 리뷰, 8월호.

9 이 자료는 북한이탈주민 A와의 심층 인터뷰(2022년 6월 15일 진행)를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 북한의 민관 협동사업의 소득 분배 절차



과 같은 개인의 수익분배 구조가 녹아있다. 예를 들어 청년 돌격대에서 여단장으로 승진하고 싶은 이유도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여단장이 되면 건설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독점적 정보를 활용하여 돈주들에게 사업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 부동산 시장은 민간 자본가와 관료들의 협동사업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북한에서 민관 협동사업의 투자절차를, 〈그림 2〉는 민관 협동사업의 소득 분배 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에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서 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민간 투자자와 관료로 구분할 수 있다. 관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 건설사업에 유리한 정보를 민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민간 자본가는 이를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독점을 행사한다. 그 결과 북한에서 자산이 많거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들은 양질의 주

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뛰어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낙후된 주거공간에 계속 머물게 된다. 명목상으로나마 사회주의 체제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더욱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시장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는 심각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는 요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북한에도 건전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칼럼 2

북한의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가능성 고찰: 시멘트시장 중심으로

최 설 박사 (굿파머스 연구소)

1. 들어가며

지난 2월 착공된 평양 화성지구 1만호 살림집 건설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초고층 주상복합 살림집 일대에는 도로건설과 원림조성사업이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¹ 지난해 3월 야심차게 착공한 평양 송신·송화지구 1만호 살림집 건설공사도 올해 4월 준공됐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2021~25년) 해마다 평양에 1만호 살림집을 건설함으로써 평양시민들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양건설 외에도 개인에 의한 살림집건설이 지방도시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부동산건설 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의주, 평성 등 지방도시에 건설한 아파트 살림집 한 채 가격이

5만 달러에 거래되는 현실²은 ‘폐쇄’된 북한에서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북한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건설이 진척되는 동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북한에서의 건설자재 생산과 조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장기화되고 있는 국경봉쇄에 대처해 북한 당국이 선택과 집중으로 실행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과 농업이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고는 건설사업에서 필수자재인 시

1 북, 화성지구 1만세대 건설 마무리단계 〈북한소리〉(기사본문 - 통일뉴스 (tongilnews.com)).

2 “신의주 최고급 아파트 5만 달러...수수료는 5천 달러,” “북한도 역세권 아파트 인기...평성시 역전동 1채당 6만 달러,” 설송아, 「사회주의 시장 풍경」 (서울: 시산책사), pp. 154-161.

멘트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에서의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시멘트시장의 태동과 확대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계획경제 와해로 자재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공장·기업소 가동이 하락하거나 멈추었다. 이어 식량배급제도 무너졌다. 공장자재와 주민식량 등 국가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하게 되자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강조하였다. 기업과 주민이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장사활동은 물론, 국영기업의 자발적 시장참여를 유인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시멘트산업의 양대 기둥인 순천시멘트공장과 상원시멘트공장이 스스로 공장생산을 시장에 판매하고 자재와 식량 등을 해결한 것이다.³ 당시 시멘트 수요는 알곡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역 등이었다. 다시 말해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이 보유한 알곡과 시멘트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가 물물교환 되었다. 공식 경제 안에서 불법적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은 암묵적으로 허용하였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멘트시장이 자생적으로 태동한 것이다. 시멘트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한정되었던 시멘트시장은

국영기업 간부와 노동자, 협동농장 간부와 농민, 일반 주민들이 중층적으로 연계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요인은 2002년 7.1조치(경제관리개선조치)가 발표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국영기업의 시장활동이 허용된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생산자재를 마련하거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 공식화 되었다. 특히 국영기업의 ‘번 수입 지표’가 도입되었는데, 여기서 ‘번 수입’은 국영기업이 국가계획 외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해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이는 국영기업 스스로 ‘시장에 팔 수 있는 돈벌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이에 맞물려 2003년 종합시장 제도가 합법화되었다. 장세만 지불하면 주민들은 누구나 장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반 주민들에게 현금저축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살림집 수요를 부각시켰다. 소득이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가 좋은 살림집을 소유하려는 욕구로 표출된 것이다. 살림집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주택가격이 해마다 상승했다. 이로써 주택수요는 폭발하였는데, 살림집이 이제는 투자와 저축 수단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은 평양을 비롯한 지방도시에서도 부동산건설 붐을 일으켰다. 부동산건설은 개인 돈주들의 투자를 유인했다. 개인에 의한 부동산건설은 북한의 주택정책과도 이해가 맞았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택을 건설해 주민들에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건설자재와 자금난으로 북한은

더 이상 국가계획으로 살림집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자체로 살림집을 건설해 지역주민들에게 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방정부는 다시 지역에 자리한 국영공장 기업소에 살림집 건설을 떠맡겼다. 자금이 부족한 공장 기업소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 돈주들에게 살림집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에 살림집 건설을 허용하였다.

이는 부동산건설의 필수자재인 시멘트 수요를 폭발시켰다. 공급주체는 시멘트공장과 공식 및 비공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장경제 주체들이었다. 다시 말해 계획과 시장 간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형성되면서 북한에서의 부동산건설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면 국영기업과 시장 간 어떻게 연계되어 부동산시장에 시멘트자재를 공급하는지, 몽당장사와 하루별이, 도매꾼과 왕초 등 사기업주체들의 경제행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몽당장사와 매일벌이

몽당장사는 ‘먼지’를 비유한 평안도 사투리다. 시멘트가루를 흡입하면서 고생스럽지만, 억척스레 시멘트 장사하는 주민을 ‘몽당장사’라고 한다. 장사하지 않으면서 가난을 타하는 사람에게 속된 말로 몽당장사처럼 살라고 한다. 여하튼 몽당장사는 밤 12시-새벽 3시 사이 공장 순찰대에 뇌물을 주고 공장 내 시멘트 창고에서 등짐으로 시멘트를 유출하여 정문 밖 도매업자에게 넘긴다. 이때 이동거리는 500미터 정도이다. 이동거리상 하룻밤에 왕복할 수 있는 기회가 1-2회로 한정되므로 등짐으로 한



〈평안남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모습. (노동신문)〉

번에 나르는 시멘트 무게는 최소 100킬로그램 이상이다.

보통 3-5명이 한 조가 되어,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순천의 사례를 본다면, 순천시멘트공장에서 전체 몽당장사가 하룻밤 ‘등짐’으로 유통시키는 양은 20-40톤에 이르는 추정도 있다. 시멘트 가격은 시장 쌀 가격의 10:1로 환산되어 몽당장사 1인의 하루 평균 수입은 쌀 5-10킬로그램 정도이다. 쌀 5-10킬로그램 가치는 공장노동자 5개월-10개월 월급과 맞먹는다. 그러므로 몽당장사는 공장 내 창고에 보관된 시멘트를 더 많이 유출해야 하므로 공장 간부와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멘트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몽당장사로 사업자금이 마련되면 몽당장사는 개인기업가로 성장한다. 2005년부터 순천시멘트공장 일대에서 2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시멘트 중개업자로 활약하며 외화벌이기를 운영한 30대의 남성 기지장(長)이 바로 몽당장사 출신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시멘트장사에는 ‘매일벌이’가 있다. ‘매일벌이꾼’이라고도 하는데 중간 도매업자로부터 시멘트를 넘겨받아 소매하는 주민을

3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멘트공장처럼 시장 수요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영기업일수록 시장화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반면 강철공장, 기계공장 등 중공업 부문들은 시장수요와 맞물리지 못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에 진입속도가 늦었다는 점이다. 초물공장처럼 규모가 작은 공장들은 거의 해체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말한다. 이를 통해 유통되는 시멘트가 내수시장 판매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멘트공장과 중소규모의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주변 일대의 인구 중 70% 정도가 시멘트 소매업자로 추정된다. 순천시멘트공장 일대에서 순천종합시장으로 가는 20여리, 약 8km 구간에는 새벽 4시부터 매일벌이꾼들이 시멘트 200킬로그램 정도를 손수레가 운반하는 행렬이 줄지어 있다. 이 양을 합치면 매일 수십 톤이 소매로 거래되는 셈이다. 시멘트판매는 종합시장 뿐 아니라 시멘트를 운반하는 도로 구간 전체가 시멘트시장으로 활용된다. 시멘트 수요자가 시멘트를 구입하려고 할 경우, 손수레를 끌고 도로에서 줄지어 가고 있는 매일벌이꾼들을 세우고 도로에 서서 흥정을 마치면, 매일벌이꾼들이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시멘트를 운반한다. 매일벌이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멘트 구매자가 많은 양을 요구하면 서로 협업해서 팔기도 한다. 이렇게 소매로 판매되는 시멘트는 주로 개인들의 주택 수리 및 온돌공사에 쓰인다.

(2) 도매꾼과 왕데꼬

도매꾼은 교통이 편리한 주택창고에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종합시장 등에서 군부대나 타 지역 상인들 대상으로 시멘트를 도매하는 상인을 말한다. 도매꾼은 시멘트공장 보위대, 몽당장사 등 시멘트물량을 갖고 있는 각이한 상인과 국영공장 간부 등으로부터 시멘트를 현금으로 사들인다. 또 국영기업 자재인수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싼값으로 시멘트를 넘

겨받아 시멘트를 확보하기도 한다. 도매꾼이 장사밑천이 커져 시멘트물량을 화물차로 유통시킬 만큼의 장사규모가 커지면 ‘왕데꼬’가 된다. ‘데꼬’는 ‘거간’을 의미하는 일본어를 북한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어원은 확인이 어렵다. 북한 주민들은 주택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집데꼬’, 고리대금업자를 ‘돈데꼬’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시멘트 ‘왕데꼬’들은 시멘트공장에서 공장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시멘트를 시장가격으로 통째로 사들인다. ‘왕데꼬’의 고객은 주로 시멘트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개인 부동산업자들이다. 부동산건설은 대부분 시장이 발달한 평양, 신의주, 평성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 아파트건설이 진행되는지, 시멘트 물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의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왕데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식 장거리 전화인 ‘빛전화’를 비롯해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며 시멘트시장에서 활약했다.⁴ ‘왕데꼬’의 특징은 국영기업과 시장 간 정보교환 및 운송 등의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사 규모가 큰 돈주일수록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약속은 신용, 신

4 2000년대 초반 해도 개인이 집 전화를 설치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시멘트시장에서 왕데꼬들은 집 전화를 반드시 설치해 시장에 신속히 대응했다. 2012년부터는 일반 상인들도 핸드폰을 이용해 장사를 하였다.

용은 생명’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개인 부동산건설업자로부터 시멘트 5백 톤 주문이 들어오면 ‘왕데꼬’들은 전화로 신속하게 국영철도 화물열차를 섭외한다. 국영철도 간부에게 화물열차 1개당 2백 달러 뇌물을 건네면 즉시 화물열차를 배정받아 시멘트 운송에 이용할 수 있다. 사실 화물열차는 국가계획에 따라 배정된다. 그러나 현금이 없으면 국가기관이라도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것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중요대상건설인 물길공장에 시멘트를 수송해야 할 경우 국가계획으로 화물열차가 배정이 된다. 화물열차를 배정받아 국가건설장에 시멘트를 수송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영철도국에는 국가계획으로 배정할 화물열차 숫자가 적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화물열차를 배정받으려면 석 달이 밀리는 건 다반사다. 이러한 공간이 국영철도 간부들에게 뇌물을 챙길 기회로 작용한다. 즉, 뇌물이 없는 국가기관에는 화물열차 배정을 기다리라고 하고, 왕데꼬 같은 시멘트 유통업자들에게 화물열차를 배정한다. 이처럼 시멘트를 수요하는 부동산업자들이 시멘트공장보다 ‘왕데꼬’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멘트물류를 확보하고 배송하는 과정에 보다 신속하게 책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왕데꼬들은 국영철도사령이나 철도국장 등 철도국간부에게 뇌물주고 그날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데, 돈을 조금 더 주고 중국에서 수입된 새 화물열차를 받아 시멘트를 운송한다. 새 화물열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면 유실량이 적다.



〈북한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출발하는 열차 (SPN뉴스=노동신문)〉

(3) 왕초

‘왕데꼬’ 중에 시멘트 도매장사를 오래한 사람들을 ‘왕초’라고 부른다. ‘왕초’는 1980년대 말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1990년대 경제난 시기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다. ‘왕데꼬’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건설 바람 속에서 성장한 도매상이라면, ‘왕초’는 북한경제가 가장 어렵던 시기에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이기도 하다.

‘왕초’와 ‘왕데꼬’를 비교 분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북한 경제변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왕초는 합법적으로 시멘트를 확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우선 각 국영공장들과 건설장에 할당된 국가 행표를 사들인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국가 행표는 무현금 행표이다. 이를테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무현금 행표를 사들이고 공장 인수원들과 3:7로 나눈다. 30%가 국영공장 인수원들에게 가는 비율이다. ‘왕초’는 공장 간부와 짜고 시멘트 출고량을 행표로 처리한 후, 확보한 70% 중 간

부에게 30%를 준 나머지 40%를 보유한다. 결국 국영공장 인수원, 간부, 왕초는 3:3:4로 시멘트를 나눈다. 시멘트는 후문에 들어선 철도로 화물열차에 실려 나간다. 시멘트 상하차에 필요한 ‘일공(노동자)’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일공시장’에서 모집한다. 시멘트 상차공의 일당은 시간당 계산되지만 일반 건설 일공보다 몇 배 비싸다. 개인 부동산건설에 동원되는 일공비용이 일당 쌀 1킬로그램 가격이라면, 시멘트상차공의 일공비용은 1시간당 쌀 1킬로그램 가격이다.

(4) 기타 개인기업

시멘트시장의 확대는 시장의 분업화를 촉진하였다. 노동시장과 서비스업종이 파생된 것이다. 시장의 파생은 개인기업 증가로 이어졌으며, 개인기업 증가는 지방정부 세원과 직결되므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포장업이다. 개인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멘트를 전문 포장하는 업종을 말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일공을 포장공이라고 한다. 한 사람에게 고용되는 포장공은 보통 3-5명이며 분야별로 작업이 진행된다. 삼질 전문공, 저울공(계량), 코바늘로 지대를 봉제하는 일공, 운반공, 생산수량을 집계하는 계산원 등이다. 지대로 포장된 시멘트는 비포장 시멘트보다 정품으로 인정되어 판매율이 높다.

포장 재료는 종이와 합성수지이다. 종합시장에서 구매한 크라프트지(일명 ‘시멘트 종이’)를 규격대로 재단하고 등사기로 상품명을 찍

은 다음 재봉으로 마무리해 판매하는 전문업자를 ‘포장지 장사꾼’이라고 한다. 개인이 만든 시멘트 지대는 수출용 포장에 주로 쓰이는데 2000년대 후반 들어 시멘트 수출이 멈추면서 크라프트지 포장지 제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내수용 시멘트에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쌀 마대와 밀가루 마대가 재활용된다. 수입쌀 마대는 무역회사로부터, 밀가루 마대는 개인 제과업자들로부터 가격을 지불하고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에서 지원한 쌀 마대가 시멘트 포장 마대로 인기가 있다. 한국산 쌀 마대는 중국산 밀가루 마대보다 품질이 좋아 가격이 두 배 정도 비싸다.

시멘트 물류업자들을 위한 개인 식당과 대기집(민박) 등 서비스업종이 크게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식당과 대기집 등은 시, 군 인민위원회 급양관리소에 소속되어 수익금의 일부를 바치며 운영된다. 국영식당, 국영여관도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대기집에 비해 서비스나 환경이 낮은 편이다.

북한 주민들이 손님맛이를 대기한다고 해서 ‘대기집’이라 부르는 시설은 전국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다. 즉, 숙박시설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시멘트시장 일대에서 운영되는 대기집과는 차원이 다르다. 시멘트시장에서 운영되는 대기집도 물론 숙박을 제공하지만, 기본은 시멘트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멘트 확보와 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례로 순천시멘트공장 주변에는 대기집이 수없이 많다. 대기집을 운영하는 개인업자들은 정

기적으로 시멘트를 받으려 출장 오는 인수원이나 타 지역 시멘트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시멘트를 사들인다. 이러한 대기집은 주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시멘트공장이 가까운 살림집 아파트가 이용된다. 대기집 이용요금은 대부분 후불제로 1일 쌀 1킬로그램 가격에 해당하는 시멘트를 받는다.

3. 시멘트공장의 시장화 촉진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시멘트시장이 확대된 배경은 시멘트공장에도 변화를 촉진했다.

순천시멘트공장의 사례를 보자. 공장 자체로 시장상품을 생산해 판매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블록(블록)과 부재 등이다. 블록과 부재는 살림집 건설자재이다. 주목되는 것은 시멘트 공장에서 공장생산물로 2차 상품을 생산하였다는 점이다.

순천시멘트공장 산하 각 직장 자체로 부재 및 블록을 생산하는 8.3작업반을 조직한 것이다. 공장에서는 각 직장마다 직장자금을 마련하도록 시장 판매용 시멘트를 공급한다고 한다. 그 시멘트로 부재, 블록을 생산한 것이었다. 시멘트 현물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그 시멘트로 부재나 블록을 생산해 시장에 판매하면 원가를 보존하면서 직장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지역의 대동강 일대에는 시멘트공장 8.3작업반들이 가설건물을 짓고 숙식하면서 부재와 블록을 생산하는 모습이 흔하다고 한다. 숙식건물과 생산 현장

부지가 대동강 기슭에 자리한 원인은 부재와 블록을 생산할 골재와 모래 등을 대동강에서 자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재와 블록을 생산해 시장에 판매하는 국영공장 8.3작업반 노동자들은 시장가격으로 계산된 임금과 식량을 지급받고 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본고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3중고 속에서도 북한의 부동산건설 프로젝트가 어떻게 가능한지 시멘트시장으로 살펴보았다. 결과 수요와 공급으로 시멘트시장이 생성되고, 정책적 요인으로 시장분업이 확대되는 동인이 내구력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공식경제(계획)와 비공식경제(시장)가 공존하며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떠나서 북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까지도 논의할 수 없음을 고찰한 것이다. 김정은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상당부문 개혁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국내외 변수로 시장억제 정책을 반복하고 있지만 2021년 새로 제정된 시, 군 발전법 등 북한이 내세우는 지방경제 자율성은 시장경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핵문제와 별개로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남북경제교류와 협력 부문의 공간인 것이다. 

식량미공급제가 낳은 북한 부동산시장, 욕망에 눈뜨는 김정은 시대 주민들

최진이 작가 (임진강 대표)

들어가는 말¹

근래에 필자는 ‘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표를 맡았던 ‘북 주민들이 읽고 쓰고 배우는 잡지’ 『임진강』 발행이 잠시 휴간 중인데, 어느 때든 북 주민 영성 계발지로 『임진강』을 탈바꿈시키든가 마지막 호를 영성 관련 주제로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현실적 가치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던 차에 『북한개발소식지』 측에서 북한 부동산(不動産)시장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부분은 재미없는데’ 하다가 김부자 정권에 의해 반세기 동안 억제되어 오던 북 주민의 욕망이 그 손자 대에 이르며 부동산 시장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겠다 싶어졌다.

북한은 1968년에 확립한 유일사상체계에 의해

전 사회가 반세기 이상 지식공백상태에 놓여있다. 김정일이 1970년대 벽두부터 실시된 전당 전군 전민 조직생활총화체계에 의해 북한 전 주민은 소통 방법을 상실하였다. 6.25전쟁 시 중공군 주둔 때부터 시작된 전민 배급제 시행으로 개인의 욕망은 억제되고 주민들은 자발적 의지를 거세당했다. 한때 남한에서까지 그 추종자를 낳았던 주체사상은 북주민에게서 겸손을 실종시켰다. 무지와 게으름, 증오와 교만이 뒤범벅된 북 사회에 300만 의 아사자를 낳은 식량 미공급 대위기가 지나가며 ‘부동산시장’이라는 욕망의 꿀단지를 낳았다. 일찍부터 종교를 추방한 탓에 영성 교육 및 관련 사고(思考)는 사막화 된지 오랜 터라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팽창되는 탐심과 죄악을 적게 짓는 다양한 방법을 북 주민들은 티끌만큼 배운 바가 없다. 이들에게 『성경(聖經)』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같은 말씀은 마치 백성을 우민화하여 권력층의 배만 불리겠다는 속임수로 들린다.

오늘 북한 주민들에게 형성된 이러한 인성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부동산정책과 밀접한 인과(因果)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부동산 시장의 정권 사유화 및 그 부패가 탄생 시킨 부동산시장의 특징과 이를 통한 북 주민의 변화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 앞서 북한 부동산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려 한다. 북한에서 〈부동산〉 용어가 법령에 등장한 것은 1990년 북한민법 제141조가 처음이다. 2009년 채택한 「부동산관리법」에 〈부동산〉은 토지, 건물, 시설물, 자원 등으로 나눈다. 즉 북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부를 낳는 〈부동산〉은 땅도, 주택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땅”은 국가 소유의 농장 밭과 개인텃밭 등 토지를, “주택”은 국가소유의 공공건물, 혹은 살림집을 말한다. 북한 주택에는 소유 상 ‘개인집’과 ‘국가주택’이 있다.

1. 김일성 시대 개인 부동산 압수정책과 북 사회 전체를 휘감은 박탈감

1945년 8.15 해방직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정권이 개인 부동산, 그 중에도 개인 토지를 국가소유로 만든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련에서 파견된 농업 전문가 2명을 지도핵심으로 첫 사회개혁인 토지개혁을 준비, 1945년 가을~겨울 사이에 지주, 부농의 강제 이주를 선행시킨다. 그 계급교양 자료를 면밀히 준비한 속에 이주되어간 지주와 그 지역의 생소한 소작인들 간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지주에 대한 전 사회

적 적대감 조성에 성공한다. 다음해 봄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표, 20여일 만에 그 실행이 완료되었다. 북조선에 있던 200만 정보의 경작지 중 100만 정보는 고농(雇農)과 빈농(貧農)에게 무상 분배, 나머지 절반인 100만 정보는 국유지로 전환되었다. 토지개혁에 의해 몰수당한 해방 후 북한의 토지면적과 세대 수는 다음과 같다.

표: 토지개혁에 의해 몰수당한 토지면적과 세대

구분	농경지 (헥타르)	(%)	농가호수 (호)	(%)
일본인	111,561	11.3	12,919	3.1
반역자	12,561	1.3	1,366	0.3
지주	231,716	23.6	29,683	7
소작인	614,243	62.3	374,554	88.6
종교단체	15,190	1.5	4,128	1
총계	983,954	100	422,646	100

(출처: 박정동 저 <北朝鮮は經濟危機を脱出できるか> 22 PPから)

표에서 보면 토지 몰수대상은 일본인, 민족반역자 뿐 아니라 5헥타르(3정보)이상을 소유한 조선인 지주, 소작인, 종교단체의 땅도 포함된다. 여기서 핵심은 몰수된 토지의 과반수와 90%에 가까운 피해자가 지주로도 분류되지 못한 소작농들이란 점이다. 북한 총 인구 중 토지 분여 인구 수는 500만(50%)인데 이는 농민 인구의 70%(농민 총 수는 700만)이다.

토지개혁 이후 5헥타르 이상의 토지 소유 농가는 없어지고 대부분이 1~3, 평균 1.8헥타르를 분여 받았다. 북한 인구 10할 중 7할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고 해방으로 산업은 곧 가동될 수

¹ 이 글에서는 조선의 전통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으로 명명한다.

없었기에 당시의 토지개혁은 북한 경제의 사적 소유 청산에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국가가 생기기 이전 자유롭게 누려오던 인간의 거주, 직업, 이동의 3대 권리 중 김일성 정권 수립으로 토지와 집을 비롯한 개인재산 축적이 거부당하면서 북한 주민은 인간의 최초 권리인 거주권에 위기를 맞은 것이었다. 북한 정권의 개인재산 몰수 정책으로 평생 쌓아온 삶의 터를 하루아침에 상실 당한 많은 지주, 종교인,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채 정권을 등져 남하하였고 북한은 그들이 남긴 원한과 정부가 심어준 부자에 대한 빈자의 적개심이 얼버무려져 평상심을 잃은 사회로 전락해 갔다.

토지개혁에 의해 토지몰수 대상인 지주에게 물어야 할 부채는 무효화되고 지주 소유의 축력, 농기구, 주택은 일체 회수해 농민에게 분여하는 한편 접수된 건물의 일부는 학교, 병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동시에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의 매매, 저당, 소작을 일체 금지시켰다. 몰수된 과수원은 지방인민위원회에, 농민소유의 소규모 산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과 지주의 관개시설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관리 하에 들어갔다. 참고로, 동유럽의 토지개혁은 실시 후 수년간 매매, 저당, 임대차가 허용되어 개인소유의 수준이 높았다. 북한에서는 토지개혁 후 이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은 물론 분배되지 않은 개인토지마저도 토지개혁법령에 의해 개인 간 매매가 불허되었다. 형식상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의무 지우고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경작인 자신이어야 한다는 규제로 개인 간 토지 거래를 막았다. 분여 받은 토지를 자체 경작 못하는 경우 그 호구의 토지는 지방인민

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고 다른 농민에게 경작권을 부여하는 〈경작권지(耕作權地)〉 제도가 실시되었다. 즉 농지소유의 유동성을 제약함으로써 개인소유권을 사실상 부인, 국유지의 개인농경영권만을 농민에게 부여한 셈이었다. 1946년 토지개혁법령을 통해 개인에게 분여했던 토지는 전쟁으로 인한 노력공백을 빌미로 1956년 농업협동화정책을 통해 정부가 강그리 흡수하였다. 그 개인재산 몰수의 완성은 곧 사회주의제도 수립 선포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주택 소유형태는 “개인집”과 “국가주택” 두 가지가 있다. 개인집은 1958년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전 국가에 몰수되지 않고 개인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어 내려온 것이거나 그것이 개인 재산으로 개축된 주택을 말한다. 개인집 주인에게는 그 소유권에 관하여 지구 재판소로부터 공증 문서가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를 밟은 개인집들은 2002년 3월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의 제12조²와 제13조³에 의해 개인소유 재산으로 규정되고 있다.

전후 잿더미 속에서 토굴살이 하던 주민들 주거난 해결을 위해 김일성 정권은 화장실은 없고 부엌과 단칸방으로 된 합숙소 수준의 5층 정도의 아파트를 대량 짓기 시작하였다. 하모니카집으로 불리는 이런 주택은 방에 들어서면 머리가 천정에 닿을 듯하고 누우면 무릎을 겨우 펴 정도의 공간이었다.

2 12조: 개인 살림집 같이 나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여러 명의 상속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3 13조: 개인집 대지는 국가소유이다.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4.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운전기재...

물론 엘리베이터는 설치될 리도 없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로 평양시 도시설계가 계획 지금의 김일성광장엔 스탈린거리가, 서성구역 모란봉 가루개⁴ 쪽으로는 모택동거리가 형성되었다. 김일성광장에 지금도 견고한 정부청사 건물들과 가루개 평남면옥 맞은편의 조종친선우의탑은 구소

련과 중국 원조를 상징하는 기념물들이다. 함흥, 청진, 원산 등 대도시들에도 루마니아, 동독, 불가리아, 체코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로 간부 및 일반인용 아파트들이 대량 지어졌다. 평양 등 대도시들의 간부용 주택은 1층 2세대, 화장실에 방 2~3칸, 부엌, 전실이 달렸으며 층고가 높다. 일반인용은 매 층에 공동화장실을 두고 외부 복도를 향해 출입문들이 줄줄이 났는데 그 매 살림집은 방 한 칸에 좁은 부엌이 있어 신혼부부 거주 용도로나 적합할 정도다. 극도의 자재 및 노력 절약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거주용으로 설계된 이런 주택 덕분에 대량의 주민들이 토굴살이에서 일단 벗어나기는 했으나 십여 년 사이에 한 집에 3~5명의 자식들이 생기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가 되면서 북한 주택 사정은 악화일로로 걸었다. 그 좁은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4 임진왜란 당시 평양의 논개로 불리는 계월향이 자결한 것으로 알려진 고개. 그녀는 평안도 병마절도사 김경서의 애첩으로 임진왜란에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부장에게 몸을 더럽히게 되자, 적장을 속여 김경서로 하여금 적장의 목을 베게 한 후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촬영한 북한 하모니카 주택. 한 집에 서너 개에서 대여섯개까지 굴뚝이 올라가있는데, 집 한 채를 대여섯 칸으로 쪼갬기 때문이다. (KBS 보도 캡처)〉

3대가 부대끼고 사느라 어떤 집은 며느리가 노이로제에 걸려 불임까지 될 지경이었다.

2. 후계자 선점을 위한 김정일 시대의 부동산 왜곡현상

1) 북 주민의 부동산 맛을 느끼게 해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살림집 선물놀이

1960~1980년대 북한정치의 핵심은 김일성 후계를 놓고 실학파와 빨치산 북만파, 그 후 북만파와 동만파 간에 벌인 두 차례의 치열한 권력쟁탈전이다. 소련 유학출신인 실학파는 당의 핵심인 조지부를 장악한 자타가 공인하는 ‘제2인자’이자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주를, 소련 군사아카데미 출신에 중국 국공내전을 경험한 북만파를 등에 업은 김성애는 김일성과 자신 사이에 낳은 아들 김평일을 각각 김일성 후계자로 내세웠다. 첫 싸움은 실학파의 일망타진과 김영주의 패배로 끝났다. 197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60돌을 기점으로 동만파가 생사고락을 함께한 김일성의 본처 김정숙의

아들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정면에 내세우면서 북만파와 동만파 사이에 2차 후계자선점 경쟁이 붙었다. 이 싸움은 1974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낳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김정일의 승리로 그 끝이 마무리되었다. 그만큼 김일성의 김평일에 대한 기대가 만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김일성 후계자 선점 시기의 북한정치는 후계자를 내세운 각 정치세력이 김일성과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벌인 “국고낭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주의 실학파 집권시절 사회주의 농촌문화주택건설, 평양시 백만세대 건설운동 등 친서민적이던 정책은 북만파가 실권을 잡으면서 실종되고 북한 사회에는 국방건설, 사회주의대건설 바람이 성행하였다. “조국통일”의 명목 하에 전시(戰時)용 지하 군수공장이 도처에 건설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경제 자립용 “사회주의 대건설” 대형투자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앞친 데 뺏친 격으로 수령 세습의 짐을 뒤늦게 짊어진 만주파 세력의 등장은 후계자 업적 쌓기용 대기념비 건설로 북한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이 참여한 정국 하에서 주민 주택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전후 날림으로 지은 주택들을 대대적으로 허물고 정치권력의 선전에 유리한 도시 건설을 강행하였기에 ‘강제 철거세대’를 양산할 뿐이었다. 이는 사용중인 자기 주택의 일부를 내어 다른 가족을 들이는 <동거>와 새로 지은 현대식 집에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들고, 그들이 살던 집은 그의 친척들이, 그의 친척들이 살던 낡은 집에 새 집 지으면서 철거된 세대가 들어와 생활하는

문화를 전 사회에 만연시켰다. 게다가 공화국 제1세대⁵들이 정년기(停年期)에 들기 시작하던 1970년대 초, 자본주의권에서 유입된 일본 귀국동포의 등장은 상류층으로부터의 가치관 변화를 일으키며 사회의 부패를 야기했다. 각지에 1호 특각⁶이 건설되는 동시에 간부들에게 하사하는 김일성-김정일의 기관별 혹은 개인별 주택 선물이 시작되었다. 그 용도로 당시의 대도시에는 고급신축아파트가, 지방에는 높은 담에 둘러 쌓인 고급 단층주택이 속속 등장하였다. 간부들에 대한 ‘주택배급’은 노후 생활보장⁷과 함께 ‘중요표창’ 내지 ‘제1개인 재산’이 되었다. 이런 물결을 타고 간부들 속에 “내집마련-내집짓기” 풍조가 거세게 일기 시작했는데 이때 요구되는 건설 및 그 자재 구입에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김일성 특각 및 대기념비 건설 바람이 도움이 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연령에 도달하면서 북한이 대형 주택위기를 맞은 때이기도 하였다. 1960년 전 후반 무렵에 태어나 북한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후세대가 결혼연령에 이른 1980년대에 부닥친 국가적 주택난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및 대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에 외화상점망이 발달하면서 외화를 활발히 소비할 수 있게 된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유입된 귀국자들과 해외연고자들, 재외가족⁸들의 주택 수요 또한 급증하는데다 지방에

살던 재일 귀국자들이 일정 금액만 내면 평양에 거주할 수 있게 된 풍조는 가뜩이나 위태로운 국가 주택공급 질서를 부수는 주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대도시들의 국가주택 배정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속으로 급격히 빠져 들어갔다. 지방의 시, 군들에서는 수년에 한번 정도로 수십여 명의 당, 행정, 경제 간부들이 부정 주택 관련 각종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축재(蓄財)의 맛을 본 사회의 음성적 주택매매행위는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 김일성 유고 직후 평양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

1980년대 말부터 북쪽으로부터 남하하기 시작한 북한의 국가식량배급 미공급 현상은 1994년 김일성 사망을 분기점으로 국가 식량배급의 마지막 보루였던 평양시를 직격하였다. 개인축적을 불허하는 계획경제사회에서 한 달에 두 번 주는 배급에 매달려 겨우겨우 살아가던 대부분 주민들은 식량 미공급 사태를 맞아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상층부에서 <대사상검토>의 명목 하에 대규모 숙청이 일기 시작할 때 대외경제사업부와 야합한 중간단위의 양정사업소가 식량을 장마당으로 빼돌리면서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지방에서 가마솥, 이불, 옷장, 창문유리까지 다 뽐아 팔아버리자 살던 집을 버리고 평양에 올라온 가족단위의 거지 떼들, 부모가 자식 생계 포기한 집을 나온 꽃제비 떼들이 평양시 모란봉과 쑥섬 일대에 둥지를 틀고 끼니때만 되면 평양시 아파트를 누비며 집집의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은 강도로 변했다. 평양시내에는 저녁 8시 이후

거리에 나르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험지대로 변하였다. 사정은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버려진 아기들이 공동변소며 철도역들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인육이 장마당에 나돈다는 소문이 주민들의 입과 입을 걸쳐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평양시 고층 아파트들은 급수가 안 되어 아파트 전 주민들이 상수도장이나 먼 곳으로 가 먹을 물을 길어와야 하였다. 새로 지어진 통일거리는 겨울난방까지 안되어 방 안에서 동사하는 노인들이 심심치 않게 생겨났다. 상수도가 막히니 하수도가 안되어 집안에서 본 대소변은 고층아파트 창문으로 버려지고 아래층은 변기에서 똥물이 폭포처럼 솟구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기구멍에 큰 기둥을 박아 틀어막아 겨우 오수의 역류를 억제하였다. 봄철이 되면 아파트 주변은 겨울 내내 창문으로 던져진 똥덩이들이 녹아 사방이 악취로 진동하였다. 난방이 끊긴 아파트 벽체들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부식속도가 빨라졌다. 운행이 느려진 시내버스는 출퇴근시간이면 승차전투장으로 변하고 그나마 운행 도중 정전이라도 되면 승객들이 전부 내려서 전차버스를 밀고 가야 했다. 비 오는 날은 버스에서 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승객들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평양-라진 행 1호 열차를 비롯한 국내 모든 철도 차량들은 보름에 한번 운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이런 생지옥 속에서 별나라 소식처럼 평양시민들의 두 눈을 반짝이게 만든 소문 하나가 있었으니 ‘야, 개인들이 아파트를 돈 주고 사고판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평천구역이나 동대원구역, 보통강구역 등의 아파트 두 칸짜리는 3천~5천 달러 하는 데 조선시대 평양성 안에서도 계

5 주로 1920년대까지 태어난 연령층

6 김일성, 김정일의 별장주택

7 공급식량 1일 600그램과 월수입 60원이라는 공로자 표창. 당시 일반인 평균 월수입은 80만원, 노력자 1일 배급 700그램 가량이었다.

8 해외에 공무, 교육, 실습, 로동 등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의 가족

란 노란 자위에 속하던 중구역 동성동의 1호도로 옆 새로 지은 방 세 칸짜리 아파트는 1만 달러가량 된다고 하였다. 평양시 주민들은 아직 부동산의 ‘부’자도 모를 때였다. 평균 임금 100원에 장마당 쌀 1kg 값이 100원으로 뛰어오르던 당시 3천 달러니 5천 달러니 하는 액수는 서민들이 몇 번을 죽었다 깨도 손에 쥐어볼 수 없는 거액이었다. 조선시대에 빈민촌이던 성 밖의 대동강구역과 달리 성안에서도 부촌이던 중구역 지대는 평양의 중심이라 가격이 높다고 하는, 무에서 어떤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듯 한 아니, 무슨 지옥 탈출구라도 되어주는 듯 한 이 말은 지옥에서 건져줄 동아줄처럼, 누군가 발견해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대다수 주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 나뉘처럼 된다는 뱀의 꼬드김 받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다.

3. 김정은 시대에 붓물처럼 터진 북 주민들의 부동산 욕망

1980년대 초, 소규모 농촌 개인농 실험을 통한 농촌 개혁개방안을 건의하였다가 김일성에게서 ‘사람이 편안하면 무슨 생각 하나?’는 말과 함께 된서리 맞은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북한 개혁개방에 대해 겁먹은 듯했다. 식량배급이 끊긴 사회는 장마당 시장화를 향해 요동치는데 장마당 폐쇄와 개방 사이만 왔다 갔다 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란 당 간부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김정일은 무력부의 보호를 받으며 전 북한주민 주민등록문건 심화 지시

를 통해 사람잡이 정국에 전 인민을 몰아넣었다. 얼마 뒤에는 무책임한 화폐개혁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김일성 시기 천재중의 천재, 만재중의 만재로 칭송받으며 김일성 혁명사적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리겠다고 김정일은 한때의 혈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눈물 많은 변덕쟁이로 변하여 있었다. 부친 김일성을 죽게 한 원인제공자⁹의 업보 때문인지 그는 더 이상의 빛을 못본 채 맥없이 생을 마감하였다.

머리 위에 두 어른이 사라진 김정은 시대는 장마당 시장화에 거침이 없었다. 주민들은 드디어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땅에 대한 국가, 혹은 개인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수준의 이해였다

국가자산인 부동산의 음성적 매매 시장이 북한에 출몰하고 나라의 법도 그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게 된 데는 뭐니 뭐니 해도 국가식량배급 미공급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독재국가라 해도 최소한 주민생계 보장도 못하면서 너희들은 꿈쩍 말고 앉아있다가 죽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인간 본성에도 어긋나거니와 국가 생존 원리의 첫 번째 조건이 국민의 존재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 벌이에 나서면서, 즉 벌이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무책임과 게으름의

⁹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일주일 전 베테랑 김일성 주치의의 젊은 의사로 교체하고, 남북정상회담 앞둔 김일성을 묘향산 별장 휴식을 강권한 후, 별장 전 직원을 묘향산 구경을 가도록 해서 김일성을 홀로 남겨놓고 정상회담차 서울 가면 안 된다는 협박성 전화를 하여 김일성이 심장발작 일으키게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질곡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의식주 중 먹고 입는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정도의 지혜와 재산이 축적되자 그 힘으로 국가의 무책임에 저항하며 자기 주택 구입 욕구 실현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사용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국가 주택 리용 허가증>에서 ‘주택은 국가소유이지만 개인이 배정받은 집은 개인의 영구적 소유(?)물’이라는 무언의 암약을 읽어 내고 거기에 매매의 파열구를 냈다. 가족 수에 비해 방이 비좁다거나 출퇴근 거리 및 시장이 멀다거나 하는 주택 사용자의 불편을 핑계로 부동산의 상품적 가치들을 창출해냈다. 장사관련 편의, 수도 및 전력 공급조건, 건물의 질, 내부구조, 텃밭의 크기, 인민반 주민구성 등등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원리도 터득해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양성화를 불허하니 비법-위법적 주택중계인인 ‘집데고’도 탄생시켰다. 이들은 대개 권력기관, 법기관, 주택당국과 인연이 깊거나 그 친척이거나 그 기관의 근속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주택관련 현직에 있는 자가 불법인 부동산 매매에 개입하기엔 위험부담이 컸으므로 이들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국가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은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국가공급제와 부동산음성 시장이 뒤섞인 무질서 세계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보다 항상 단호하고 주도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다. 내 돈을 떼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와 조건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임하게 된다. 그 치열한 암투과정을 거

치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집을 마음 놓고 사용하도록 사후(事後) 처리도 말끔히 해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국가주택을 사고파는 부동산암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매매가 지불을 2차에 분납하는 체계를 세워 구매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냈다. 장기간 외지에 나와 있는 군인, 건설돌격대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형식의 부동산 상품도 고안해 내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개인들에게서만 발휘되는 것 아니었다.

2012년 6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돈의 출처를 따지지 말고 투자하게 하고, 리윤도 보장해 주라”는 지시는 장롱 속에 숨어있던 돈주들의 달력을 끌어내기 위한 당국의 첫 조치였다. 2010년대 중반 평양시에 약 5만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됐는데 국가의 직접 투자는 5,000세대 미만, 나머지는 전부 돈주들의 자금에 의해 지어졌다. 돈주들이 뒤에서 세멘트와 강재를 대고 중국에서 건축자재를 들여다 실내외 장식을 하게 한 것이다. 그 대가로 완공된 아파트 살림집 분양(分讓)을 그들에게 하였는데 아파트 1채당 얻는 이익은 5천 ~3만 달러, 돈주 1인당 최고 10여 세대까지 분양되었다. 창전거리건설 때에는 ‘1만 달러 이상 내는 돈주에 대해 화선입당을 시킨다’는 광고가 나왔고 그 결과 돈주들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을 하루 앞둔 올해 4월 14일, TV뉴스에 북한의 평양시 보통강 강변에 지어진 800세대 규모의 다락식 고급아파트 준공식 모습이 잠시 방영되었다.



〈평양 보통강 강안(강변)에 새로 조성된 다락식(테라스식) 고급 주택 지구(위)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 집을 선물 받은 이춘히 조선중앙TV 아나운서와 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아래).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1970년대 주석궁(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관저가 있었던 자리로 알려져 있다.〉

그 구체적 위치는 김일성 주석이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5호택 관저 자리’라고 하였다. 김일성이 1960~1970년대에 살던 보통강 신흥동 저택이 있던 곳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팔장을 낀 북한중앙텔레비전 인민방송원 리춘희가 선물 받은 자기 아파트로 향하는데 그 뒤로 바다처럼 늘어선 평양시민들의 열화 같은 환호가 보여졌다. 북한에 40년을 살았던 필자의 직감으로 ‘고급 부동산 취득욕에 대한 간접적 성취감에서 오는 환호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그 환호 속에는 김일성의 사적지를 디디고 살게 되었다는 약자의 쾌감마저 덧칠해져 있었다. 현 북한 체재에서 김일성 관저 자리는 동상이나 다른 사적지보다 깊이 있는 곳이기에 잘 보존해 놓

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텐데 그 곳을 파 제끼고 살림집 지을 정도로 북 주민들의 부동산 욕은 도를 넘고 있는 것이었다. 북 주민들의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벗어난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잘 다스려낼까, 그것이 바로 북한에 관심을 둔 자의 또 하나의 과제는 아닐까 고민해 보며 길어진 글을 마친다. 🐼

주님의 은혜 (3)

김 모 란 (탈북청년 공동체 간사)

10. 제2 기숙사 〈럭키하우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 주고 집 없이 떠돌아 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이사야 58:7)

저는 ‘아가페통일리더’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분명한 목적을 명문화했습니다.

제2조. 목적

본 공동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2.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고의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며
3. 기독교적인 섬김과 나눔,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4. 북한 여성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5. 세계화에 발맞춰 글로벌 인재로 준비하여 전 세계 여성들과 협력하며
6. 나아가 통일 후 북한 여성들에게 기

독교적 가치관과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천 통일여성리더로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공동체에 첫 신입생을 보내주셨습니다. 간호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1명, 경제학과 1명 등 학과는 다양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한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중 3명의 학생이 경기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학교까지 왕복 3-4시간을 통학에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제1 기숙사 해피하우스〉에는 5명의 학생이 살고 있었고, 추가로 더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신입생들인데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보시고 꼭 필요한 것이면 채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저기 보증금을 빌려주실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아가페통일리더에 귀한 학생들을 보내주셨는데, 비록 지금 우리의



〈제2 기숙사 럭키하우스〉

경제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제2 기숙사〉의 보증금을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 봅시다.” 결국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통장 잔고에 청약 적금까지 해약해서 보태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을 받아 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학교 앞 25평형 아파트를 계약하고 신입생들이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제2 기숙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이름을 ‘럭키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 대학교 개강이 20일 늦춰지고,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기숙사 안에 학생들이 각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서실 책상을 비롯하여 필요한 일체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입생, 재학생 모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을 겪었던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시는 두 기숙사 안

에서 10여 명의 탈북대학생들은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낄 틈도 없이, 서로에게 위안을 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1.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하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21:15)

두 기숙사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주 이북식 김치, 밀반찬, 이북식 시래기 된장국을 만들어 ‘해피하우스’와 ‘럭키하우스’에 공급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딸아이를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대학 4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곳의 기숙사를 관리하며 탈북학생들을 돌봐야 했기에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탈북학생들을 돌봐주면서, 내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전적인 희생 없이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자력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전문가였습니다. 22년 동안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이 분야의 정상에 올랐으나 모든 커리어



〈기숙사에서 함께 만들어 먹은 북한 음식들과 반찬들〉



〈아가페통일리더 추석명절〉



〈기숙사 생활 모습〉

와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해서 첫먹이 아이를 돌보며 저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가페통일리더’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사역지이고 우리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파견하신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탈북학생들은 고향에서나 먹던



2020. 한강 수해복구 봉사

언감자떡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명절이나 누군가의 생일이 돌아오면, 모두가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농마국수, 인조고기밥, 두부밥을 비롯한 고향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함께 먹으며 향수를 달래곤 했습니다. ‘아가페통일리더’ 학생들은 기숙사를 예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선포 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금지되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가족처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을 사랑하시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큰 뜻과 놀라운 계획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제가 ‘아가페통일리더’의 재정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나님 뜻에 감사하고, 넘치면 넘치는 대

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뜻에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은 한강 수해 복구 봉사 등 여러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연습을 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12. 밀과 가라지를 선별하시는 하나님, 시련은 언제나 있다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라고 하겠다.”(마태복음 13:30)

이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피하우스’에 거주하던 한 학생의 일탈로 공동체 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돈을 주는 외부 탈북민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가 법적으로 모임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던 시기에 20명 이상이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구성원에게 꼭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학생은 친척집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

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또 거짓말을 하고서 100여 명이 모여 3박 4일간 진행하는 정치프로그램에 참가하려 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던 다른 친구까지 유혹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당연히 함께 살던 다른 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는 한 사람만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가격리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동선까지 체크하던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들이 뉴스에 도배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까봐 매우 신경이 쓰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더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기숙사에 함께 살던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제목을 듣고서는 돈을 주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졸업을 앞둔 선배들에게는 “취직 시켜줄 높은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대 줄 수 있는 남자 스폰서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가입한 외부 정치 단체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기 어느 대형교회에서 탈북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 효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는 돈을 좇아서 교회에 출석하던 탈북민들은 기존에 다니던 교회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그 교회로 옮겼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한 탈북

민 출신인 A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치 탈북민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학생도 돈을 많이 주는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A씨가 주도하는 정치단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A씨의 지시로 우리 학생들을 한사람씩 몰래 유혹해서 데리고 가려 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은혜롭기만 했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동체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까지 주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결코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는 것이 임원진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학생은 ‘아가페통일리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원진은 ‘아가페통일리더’ 공동체 관리 규정에 입각하여 문제의 학생을 기숙사에서 퇴출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해당 학생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계속〉

아가페통일리더 공동체는...



아가페통일리더

AGAPE UNIFICATION LEADERS
(아가페 통일리더 공동체 로고)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후,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일리더로 준비하기 위해 이화에서 공부하는 북한 출신 크리스천 학생들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북한을 사랑하시고 탈북민들을 통일 후 복음의 전달자로 사

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뜻과 계획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을입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성경공부 모임, 독서 세미나, 봉사 활동, 의료선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지향하며 주변에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글로벌 크리스천 통일리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9-10월 연달아 대규모 군사 행보



〈북한에서 공개한 내륙 저수지에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북한이 9월 말부터 10월까지 연달아 대규모 군사 행보를 보이면서 그 맥락이 주목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 북한은 이 훈련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9월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북 태천 인근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았다. 애초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알려졌지만, '저수지 발사'라는 신개념을 창조하면서까지 투발수단·장소 다변화에 나섰다.

9월 28일에는 오후 6시 10분과 6시 2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SRBM을 2발 발사했다. 북한은 남한 비행장 무력화를 목적으로 전술핵탄두를 모의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9월 29일에는 오후 8시 48분과 8시 57분 평남 순천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2발, 10월 1일에는 오전 6시 45분과 7시 3분과 평양 순안에서 북한판 에이태컴스(KN-24) 또는 KN-25로 추정되는 SRBM 2발을 각각 쏘았다.

북한은 상이한 비행 특성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상공 폭발, 직접 타격, 산포탄(분산탄) 등 여러 형태의 타격을 실험했다고 주장했다.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 목표 상공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EMP(핵전자기파) 발생해 지상의 인명과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10월 4일 오전 7시 23분께는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쪽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비행거리 4천 500km를 기록했다. 탄종을 바꿔 사거리를 급격히 늘린 것인데 이에 대해 북한은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음을 밝혔다.

10월 6일 오전 6시 1분과 6시 23분 평양 삼석에서 동해상으로 KN-25, KN-23 추정 SRBM을 각 1발 발사하고 9일 오전 1시 48분과 1시 58분 강원 문천(원산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KN-25 추정 SRBM 2발을 날렸다. 평양 삼석과 강원 문천은 과거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곳이고, 새벽 시간대 발사 역시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 공개한 북한 전투기 훈련 사진〉

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각종 방사포 발사 및 전투기 무력시위도 이어졌다.

북한은 10월 8일 전투기를 무려 150대나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전술조치선보다 북쪽에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남하하지는 않은 채 비행하면서 시위를 벌였으며 우리 공군은 대응 비행과 비상대기전력 등으로 조치에 나섰다. 특히 군 당국은 F-35A 등 최첨단 자산까지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 60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운용 가능한 수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위는 극히 이례적이고 다소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다수의 포사격도 이어졌다. 북한은 10월 14일 새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 오후 5시 경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 등 총 5곳에서 560발 넘게 포격했다. 10월 18-19일에도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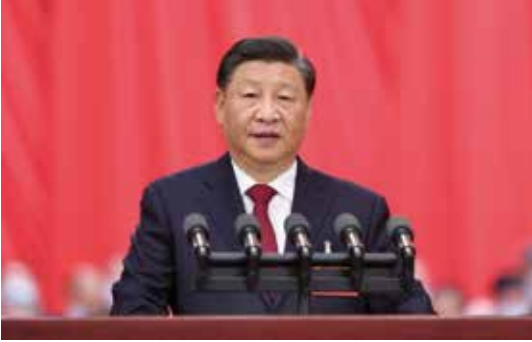
을 가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잇달아 위반했다. 낙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였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10월 24일 새벽에는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도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10발을 위협 사격했다. 중국의 당대회가 끝난 이튿날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 군의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방사포로 위협사격을 한 것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 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핵과 관련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무기 개발 등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소형 핵탄두 개발과 위력을 높이고자 7차 핵실험도 감행할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 시진핑 지도적 지위 확립



〈제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적인 3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으며,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0월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22일 폐막한 20차 당 대회에서 약 65%를 물갈이한 205명으로 새롭게 20기 당 중앙위원회가 꾸려진 데 이어 23일 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 선출됐다.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63) 상하이시 당 서기, 차이 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덩쉐상(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66) 광둥성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진(習家軍)' 인사 4명이 새롭게 진입했다.

또 종전 최고 지도부에서 시 주석의 책사로 자리매김 한 왕후닝(67)과 시 주석 반부패 드라이브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자오러지(65)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에 잔류했다.

종전보다 1명 줄어든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포함)에도 황쿤밍 당 중앙선전부장과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 석,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시 주석의 측근들이 여럿 포함됐다.

반면 중국의 2인자로 불렸던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4명은 명단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공청단(공산 주의청년단)파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아온 후춘화 부총리는 상무위 진출에 실패한 것은 물론 중앙정치 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다.

새 최고 지도부가 시 주석과 시 주석의 복심 인사들 로 채워지면서 상하이방(上海幫·상하이 출신 정·재 계 인맥)과 공청단파 등 타 파벌은 사실상 '전멸'한 셈 이다.

당 대회 계기에 '집중통일영도'의 지도 원칙과 '인민 영수' 칭호가 확산하면서 공산당 일당 체제의 최고 지도부 안에서 '분권'을 지향했던 집단지도체제는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만에 사실상 와해하는 양 상이다.

한편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지난해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제시한 '공동부유'가 계속해서 핵 심경제의제로 제시되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중산층을 확대하 고,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공동부유 의 실제적 의미를 강조했다. 당 대회 폐막일에 만장 일치로 통과된 공산당 '헌법'인 당장(黨章·당헌)에 도 '전체 인민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점진적 실현'

이 명기되었다.

또한 양안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6일 당 대회 개막 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하 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 한 반대 및 억제 의지가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 (黨章·당헌)에 처음으로 명기됐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당분

간 적어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 막 연설에서 '동태청령부동요'(動態清零不動搖,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 하면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냈다'는 말로 제로 코로 나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참고: 언론보 도 종합〉

북중 화물열차 150일만에 운행 재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화물열차를 소독하고 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운행하는 북중 화물 열차가 9월 26일 운행을 재개했다. 이날 짙은 안 개가 깔린 가운데 오전 7시 43분께(현지 시간) 10여 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 둥에서 출발, 중조우의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했 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은 중단된 지 150일 만이다.

북중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북

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8월께 운행을 중단 했다가 지난 1월 16일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코 로나19 확산으로 단둥이 도시를 전면 봉쇄하면서 지 난 4월 29일 다시 멈췄다.

단둥에서는 7월 18일부터 70일째 신규 감염자가 나 오지 않았으나 지난 5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번지 면서 운행 재개가 늦어졌다. 해상교역에만 의존해 물 자 부족을 겪어온 북한은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뒤 중국에 지속해서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요청해왔다.

중국 정부도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사실을 공 식 확인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북한 쌍방은 양국의 변경 관련 조약에 근거해 우호적 협상을 거쳐 단둥-신의주 항 구 간의 철도 화물 운송 재개를 일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26일〉

북한 원-달러 환율 8천원 돌파... “무역재개로 원화가치 추가 하락 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이 9월 이후 8천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신의주와 평안남도 안주 기준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8천 2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5천원 이하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올초 6천원으로 오른 이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 여름 7천원 대를 기록한 뒤 9월 들어 8천원을 넘어섰다.

북한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집계한 최근 비공식 환율 통계에서도 9월 중순 8천원으로 집계된 원·달러 환율은 9월 말 8천500원으로 소폭 증가한 후 10월 첫째주 8천200원, 둘째주엔 8천150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북한 당국은 외화

사용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 청진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주민과 기관들에 외화 교환 시 국가은행 이용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외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외화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 외화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북한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중 무역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외화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북중화물열차가 운행을 재개한 만큼, 북한 무역상들은 점차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 중국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 위안화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10월 18일> 🐼

- 1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장마당을 넘어 이제 부동산 시장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오고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장화의 진전은 주민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자산가들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권력을 지닌 관료와 자산가(돈주)의 결탁과 그로 인한 심각한 부정부패라는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북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쉽사리 예단할 수 없지만 경제 정의가 증진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아가 신앙과 선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북한 사회가 부정부패와 배금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9월 말부터 연말에 대규모 군사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핵 투발용 미사일 발사 실험부터 포사격 실험과 대규모 전투기 훈련에 이르기까지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훈련을 참관하면서 핵 무력을 강조하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북핵 대화 재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말부터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막혀있었던 국경이 150일 만에 열린 것으로서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을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국제적인 경제 불안에 따른 환율 폭등과 북한의 부족한 식량 생산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4 중국의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10월 16-2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지도부가 물갈이 되는 가운데

데 제로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중국의 코로나 방역 장기화 및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한 언급 등은 동아시아의 긴장은 물론 선교현장에도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외에도 청년교양보장법 등 기독교 박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문화 통제 법률을 만들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박해의 소식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넘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북한의 마약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빙두(필로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및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없는 통제 일변도 대응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마약을 의료용으로 찾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접촉하게 될 마약으로 고통 받는 탈북민들과 북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약 문제를 쉬쉬하는 것이 아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탈북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은 탈북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크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우울증으로 인한 탈북민 고독사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펜데믹 완화에 발맞춰 탈북민들과 만나고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교회와 사역자가 세워져야 하지만 탈북민 교회들은 코로나 시기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의 탈북민 부서들도 대면 예배 중단 및 교회 여건 악화로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위한 목회자와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 기도가 꾸준히 이어져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도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10월 31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명 (전임)
Finance Officer (회계 간사) ○명 (전임)

지원 자격

- 공통: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커뮤니케이터: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업무 필수- 국제본부 기준에 따라 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영어 사용 필수)
- 회계 간사: 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 경험자 우대) 영어 능력 우수자 (필수, 영어로 의사소통과 문서 작성 필요)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우대사항

- 공통: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공통: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 회계 간사: 회계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구인시까지
- 문의: 이제나 간사 (커뮤니케이터 문의 010-4668-6356)
송레아 간사 (회계 간사 문의 010-9717-0341)
- 이메일: info@opendoors.or.kr